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6/14(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6/13(月) 11:00부터**

※ 문의 : 무역인증서비스팀 이현배 팀장(6050-3333), 김현민 차장(6050-332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6개월 ...

商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 누리는 기업 늘어나”

- 商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연초 대비 발급건수 2배 ↑ 발급금액 37% ↑
- 관세혜택 큰 화학, 기계, 소비재 빅3 비중 절반 넘어 ... 조선업종 발급건수 ‘0’
-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비해야 ... 기업교육 및 지원확대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작년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금년 5월말까지 총 31,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6월 20일에는 36,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연초 대비 발급건수 2배 ↑ ... 발급금액 37%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5월 기준 7835건을 기록해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일 평균 250건에 달하는 증명서가 발급된 셈이다. 발급 금액도 9100억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37%가량 상승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 기반 對중국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표-1.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 및 금액 추이 ('15.12 ~ '16.05)]

	2015년	2016년					합계	전체 FTA C/O* 비중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한-중 건수	634	4,034	4,653	7,242	7,090	7,835	31,488	29.6%
금액 (천불)	87,528	499,022	553,545	805,465	710,528	788,036	3,444,127	35.8%
한-아세안 건수	8,368	7,172	7,945	9,320	8,493	9,421	50,719	47.7%
금액 (천불)	625,274	626,969	617,750	651,313	558,488	704,972	3,784,768	39.3%
한-인도 건수	3,349	2,759	3,190	4,018	3,502	3,807	20,625	19.4%
금액 (천불)	326,479	306,011	321,588	404,178	345,332	349,182	2,052,773	21.3%
기타 건수	348	421	451	697	744	820	3481	3.3%
금액 (천불)	10,641	39,752	30,057	46,130	88,160	127,575	342,318	3.6%

*전국 상공회의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건수/금액 기준 (한-미, 한-EU 등 자율발급 대상 제외)

- 화학, 기계, 소비재 발급건수 ↑ 조선 업종 '0' ... 업종별 명암 엇갈려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 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빅 3' 품목인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는 매일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한 반면 조선업 관련품목은 한건도 없어 업종별 명암이 드러났다.

[사례1]

서울에서 조제식료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주력제품인 음료베이스 품목이 FTA 발효 전 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협정 발효 후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해당품목 관세율이 3.5%p가 낮아진 31.5%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관세혜택이 매년 더 커지게 되자, A사는 중국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라인도 점차 증설할 계획이다.

[사례2]

경기도에서 자동차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B사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했으나, 지난해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약 1억원의 관세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B사는 한중 FTA 활용을 위해 회사내 원산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증수출자 자격까지 취득하였다. 덕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생략과 심사 간소화와 같은 다양한 혜택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표-2. 발급건수 상위 5대 업종 기간별 추이 ('15.12.20 ~ '16.5.31)]

순위	HS 코드		기간별 발급 건수					
	2단위	산업분류 (비중)	2015년	2016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39	화학 (30.6%)	216	1,220	1,410	2,262	2,124	2,414
2	84	기계 (14.3%)	104	580	608	1,004	1,021	1,177
3	40	소비재 (9.3%)	43	364	388	690	717	738
4	73	철강금속 (7.4%)	49	248	315	552	534	635
5	85	전기전자 (7.0%)	37	313	305	528	463	562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들면서 관세혜택이 커진 빅3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한류열풍으로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진데다 관세절감 효과가 더해져 발급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역별 발급건수도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롯하여 화학, 철강, 기계 관련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국 상공회의소별로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22,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 업종 비중이 많은 안양(1,324건),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1억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규모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 (23,543건, 74.8%)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754건, 21.4%)이 뒤를 이었다. 건당 수출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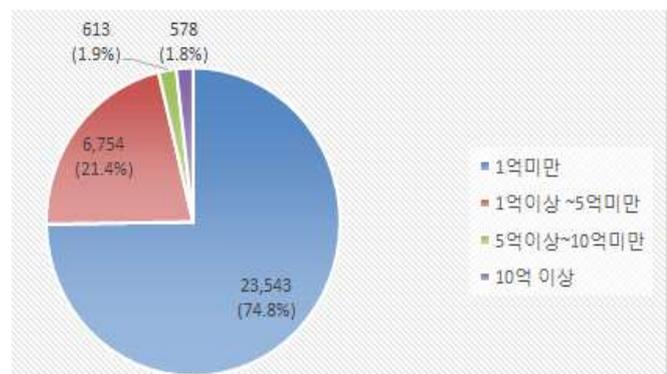


그림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건당 수출금액 분포

- 한·중 FTA 발효 2년차 ...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비해야

대한상의는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은 물론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0,000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한·중 FTA 관세혜택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중국시장 진출이 원활해졌다”면서 “FTA 활용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